

벧사공 노릇 똑똑히 해야

“이게 내 범명입니다.”
 박태승 법사가 책상 위의 명패를 가리켰다. 이름 앞에 ‘서주(西舟)’라는 범명이 새겨져 있다.
 “서쪽으로 가는 배, 그 배의 노를 젓는 사공이 되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석주(昔珠) 스님에게 받은 범명인데, 자신의 ‘일생과업’에 딱 들어맞아 범명이 곧 화두가 됐다. 전우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일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서방정도로 가는 배를 저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한 순간도 소홀할 수 없다.

“여기 법당에 모신 소년병 3260위를 비롯한 모든 전사자들의 해탈성불을 빌고 그 부모님들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빌라는 것이 석주 스님께서 범명에 실어주신 나의 원력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신이 소년병으로 참전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고 형이 전사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부모님을 피눈물 흘리며 봉양했으니, 세상의 모든 참전용사와 전사자 그리고 그 부모들이 결코 자신과 다른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박태승 법사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뉴스를 보면서 선원들이 한 생각을 잘못하여 저토록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범명에 실린 뜻을 생각하니 등에 땀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도 벧사공 노릇을 잘못하면 저 무명의 세계로 나의 전우들과 부모님들을 밀어 넣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곱씹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육군대장의 가슴에서 빛나는 무공훈장도 전사자의 무덤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빛나는 훈장도 죽음에는 비길 수 없다는 말이다. 죽음으로 임무를 다한 전사자는 훈장으로 다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참전소년병의 경우는 그 역사적 실존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박태승 법사는 소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국가 차원의 예우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6.25참전소년병전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은 950여 명.

“참전 소년병은 약 3만 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3000명 이상이 전사했고요, 대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었지요. 돈이든 권력이든 있는 집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개념부터 다른 학도병과 소년병이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년병은 정식 군인이었는데 그에 따른 예우는 없었거든요. 아침마다 옛 전우들의 위패 앞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일 만 번의 염불로 해탈열반을 빌어 드리는 것 말고도 참전 소년병으로서 내가 할 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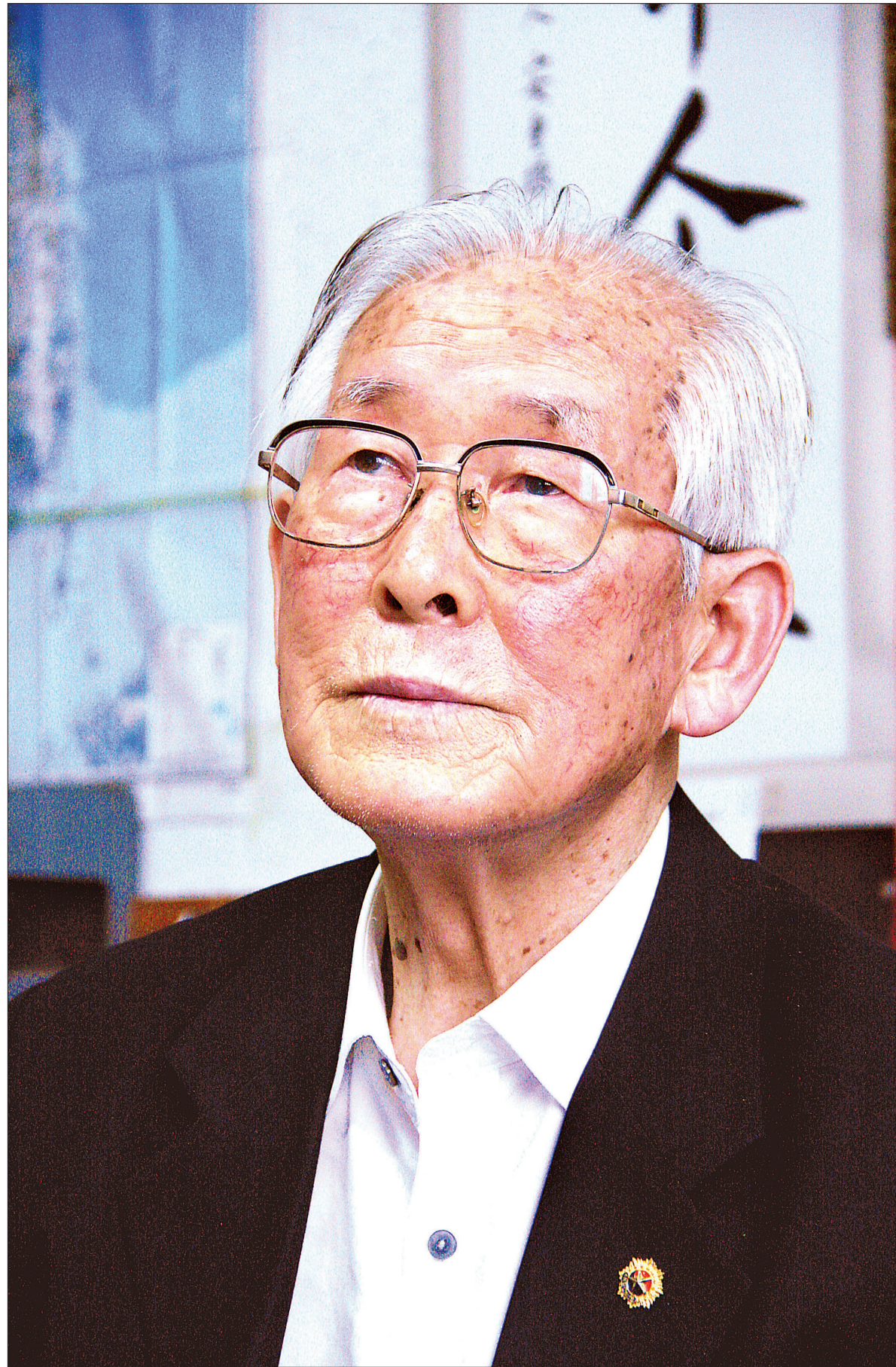
박태승 법사는 1996년 소년병전우회중앙회를 조직하면서 있어졌던 소년병 복원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2001년 무연고 소년병 870위를 서울 현충원에 모셨고, 매년 6월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도 오는 20일 대구 앞산공원 승전기념관에서 위령제가 열린다. 소년병의 실체조차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소년병’ 역사적인 재조명 필요

박태승 법사의 일생에 6.25라는 숫자는 아주 큰 의미다. 집 전화와 사무실 전화는 물론 휴대 전화의 번호도 모두 0625다.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기억이 그만큼 깊은 골로 남아 있고, 그로부터 비롯된 삶의 모든 의미가 ‘서주’라는 범명의 원력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니 그 숫자가 곧 삶의 전부가 된 것이다.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었지만, 나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가슴에 호국과 애국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기회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태승 법사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적힌 종이를 내밀



박태승 법사는 ... 1933년 중국 요녕성 개원시에서 태어났다. 1950년 소년병으로 입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1955년 전역했다. 1972년부터 불교에 입문했다. 석주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서주’라는 범명을 받았다. 1974년 풍기 불교법우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했다. 1988년부터는 조계종 포교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영풍군 평화위원장 소임을 맡았다. 안동, 청송교도소 종교위원과 보병 제50사단, 70사단의 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6.25참전소년병전우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2009년에 심우원 법당을 건립하고 현재 심우원 삼일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었다. 참전소년병의 역사적 존재성에 대한 국가 사회적 시선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했다. 읽다가 중간에 눈길이 멈춘 한 대목은 이렇다.

‘국가와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동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는가? 피어보지도 못한 꽃 봉우리가 왜 전장의 이슬로 산화하였는가? 그 장하고 거룩한 순국영령이 무려 3260위, 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화랑관장이요 류관순이라고 할 것이다. 전국에 300여 개의 현충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소년병의 것은 단 한 기도 없다. 포성이 멎은 지도 어언

60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순국소년병의 거룩한 구국정신이 역사에 재조명되어야 하고 현충시설 등을 건립해서 후세에 귀감으로 전승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하겠다.’

소년병 전사자를 위한 기도도와 그 존재성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백발에 흉안인 박태승 법사는 40년 넘도록 지켜 오는 원력이 하루속히 성취될 바라며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향과 초를 올리고 묵탁을 잡을 것이다.

풍기=임연태 논설위원

전법일기

두만강 건너 온 지현이의 희망

지현이는 내가 만난 통일(탈북)보다는 작은 통일의 의미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함) 청소년 중에서도 유독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다. 16살 때 혼자 두만강을 건너 북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소녀가 19살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지현이가 2014년도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던 날 오후기십터 식구를 얼굴에는 함박꽃이 피었다.

“스님, 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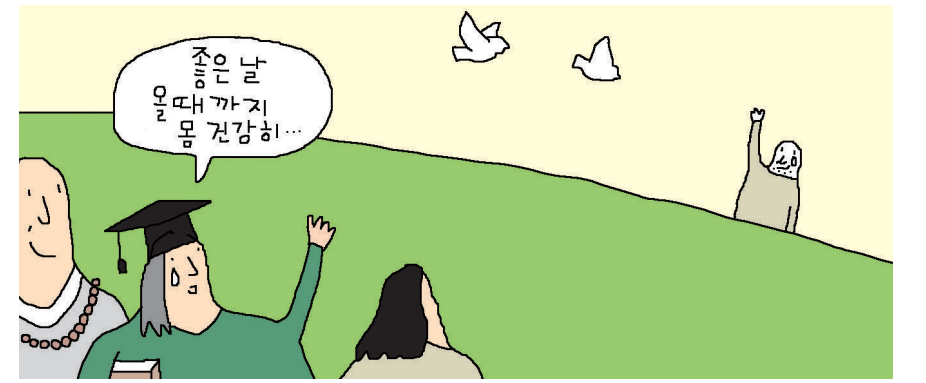
어느 날 심터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지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초등학교 4학년과정이 지현이가 북한에서 배운 공부의 전부였다. 더구나 남한은 초등학교가 6년 기간이라 학습량이 차이가 컸다.

“스님,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

부도 품에서 곱게 자라는 요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무척 의젓하고 속이 깊었다.

지현이는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다. 인터넷으로 또래 아이들이 관심 갖는 유머나 음악, 책, 문화 같은 요소를 검색해 열심히 찾았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적을 취득했어도 그 사회에 속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11시에 잠들면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는 지현이는 오후기 십터의 좋은 분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이어졌다. 최근에 지현이의 엄마도 한국으로 무사히 건너왔다. 딸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북에 남기로 했다. 고향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하셨다고 한다. 어쩌면 평생 만나지 못



그림·박구원

으면 왜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냐고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로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어요.”

사실 남한 사회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대접이 다르다. 취업이나 영예도 학벌로 사람을 구분하니 지현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지도 않도록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했다.

지난 2년간 처음 심터에 왔을 때보다 지현이는 2cm가 더 자랐고 태국의 수용소 생활로 앙상해진 몸에도 살이 올랐다. 지현이는 남의 말에 휩쓸려 이러저리 방황하는 또래들과 달랐다. 심터 선생님들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공부했다. 처음에는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불편했다. 차츰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의 정착을 위한 보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안정적이었다고 한다. 홀로 남은 지현이는 심터에서 생활하며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30만원을 아꼈다. 옷 한두 벌과 교통카드 충전, 핸드폰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저축했다. 그렇게 2백만원을 모아 북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참 대견한 아이다.

“저는 공부 외에 외출할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아픈날까봐서 걱정이예요.”

할 지도 모르는 아버지. 지현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중국에도 다녀왔다. 두만강 근처에서 고향쪽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 하다가 끝내 눈물을 쏟았다. 매사에 따라 대접이 다르다. 취업이나 영예도 학벌로 사람을 구분하니 지현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지도 않도록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했다. 지현이는 남의 말에 휩쓸려 이러저리 방황하는 또래들과 달랐다. 심터 선생님들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공부했다. 처음에는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불편했다. 차츰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의 정착을 위한 보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안정적이었다고 한다. 홀로 남은 지현이는 심터에서 생활하며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30만원을 아꼈다. 옷 한두 벌과 교통카드 충전, 핸드폰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저축했다. 그렇게 2백만원을 모아 북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참 대견한 아이다.

새로운 계획이 있다. 남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역원을 담은 평화마라톤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녀오고 싶다. 그래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번져가길 바래본다.



진요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둔사 주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과강판, 일반기과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